

Aramco, 아시아 원유 수출가격 인하

아랍 라이트 원유 배럴당 25센트 인하 ... 7월 선적분부터 본격 적용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기업인 Saudi Aramco는 나프타(Naphtha)를 생산하는 정유기업들의 정제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아시아로 수출하는 원유의 공식 판매가격을 7월 선적분부터 인하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랍 엑스트라 라이트 원유 가격 인하폭은 한국, 일본, 타이완, 인디아 등 7개 정유기업의 추정치를 감안하면 중간가격인 배럴당 35센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Saudi Aramco가 6월 둘째 주에 가격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력 수출 원유인 아랍 라이트 원유는 배럴당 25센트 내리고, 아랍 중질유는 배럴당 10센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최근 싱가포르와 타이의 신규공장 가동에 따른 공급확대에 수요감소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나프타의 정제마진은 5월17일에는 배럴당 1.33달러에서 10일 후인 5월27일에는 기준 마이너스 2.27달러로 떨어졌다.

Saudi Aramco는 5월 아시아에 수출하는 6월 선적분 아랍 라이트 원유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04>